

V. 한-헝가리 경제교류 현황 및 진출방안

1.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현황

가. 교역 현황

□ 수교 이후 점차적 교역규모 증가

- 1989년 한국-헝가리가 수교를 맺으면서 양국간 교역규모는 급증함. 특히 수출의 경우 동년 136.7%의 증가율을 보이며 급격히 늘어남.
- 2000~07년까지의 수출은 줄곧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전체적인 증가추세를 이어감. 수입도 전반적으로는 양국간 수교 이후 증가하였으나 수출의 증가율과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임.
- 이러한 교역규모 증가추세는 대 헝가리 직접투자 진출에 따른 기계설비 및 원부자재, 전자제품 수출이 급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헝가리의 EU 가입이후 대 헝가리 수출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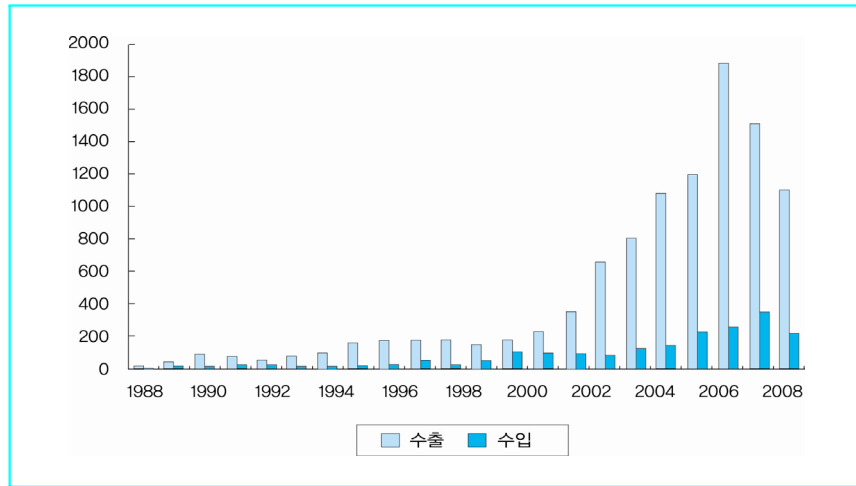
- 2002년부터 다시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특히 2004년 헝가리의 EU 가입과 함께 대 헝가리 수출품목이 관세 인하 효과를 누리게 되고,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도 증대됨에 따라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였음.
- 이에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8년 18.7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3년의 7.4억 달러보다 150.5% 증가한 수준임.
 - 2008년 기준으로 헝가리는 한국의 43위 수출상대국, 55위 수입상대국임.

□ 우리나라의 꾸준한 무역흑자 기조 유지

- 양국간 무역수지는 우리나라가 꾸준히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1995년 무역수지 흑자 규모 1.4억 달러 초과이후 감소하여 2000년 흑자 규모가 0.7 달러까지 축소되었으나, 2001년 다시 1.3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2007년 이후부터는 1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 2004년 이후 매년 대 헝가리 수출은 수입의 5배가 넘는 규모를 기록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흑자 기조가 단기간에 변화될 가능성은 미미한 것으로 보임.

<그림 V-1> 대 헝가리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현지 진출업체에 대한 수출이 대부분

- 우리나라의 대 헝가리 수출은 주로 현지 진출업체의 생산용 원부자재 및 대기업이 생산하는 고가 소비재 제품이며, 1억 달러 이상의 연간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품목은 무선통신기기, 영상기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자동차로 조사³⁹⁾ 됨.
- 주요 수출품은 전자제품 및 기계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전 기전자제품은 2000년대 이후 1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여 2007년에는 최고 14억 500만달러 규모의 수출을 기록하였고, 기계류의 경우 2003년부터 1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여 2007년 최고 3억 7,900달러 수출 기록을 세웠음.

39) MTI 3단위 기준

- 자동차 수출의 경우 기아차 헝가리 판매법인의 수입수요가 상당하고, 무선통신기기 및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는 삼성전자 등이 헝가리 판매법인에서 수입하고 있음.

□ 자동차 부품 및 농산품 수입

-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 헝가리 수입은 자동차부품, 원동기및펌프, 컴퓨터, 육류 및 곡실류가 연간 수입규모의 2/3를 차지하고 있음.
- 절대적인 수입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나 농산물 수입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으며, 한-EU FTA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품목 역시 농산품 부문임.

<표 V-1> 대 헝가리 품목별 수출입 규모 (2008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수 출		수 입	
1	무 선 통 신 기 기	335	자 동 차 부 품	74
2	영 상 기 기	305	원 동 기 및 펌 프	66
3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50	컴 퓨 터	42
4	자 동 차	238	육 류	37
5	반 도 체	38	곡 실 류	20
6	합 성 수 지	34	기 계 요 소	15
7	컴 퓨 터	28	무 선 통 신 기 기	12
8	자 동 차 부 품	27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0
9	철 강 판	26	가정용회전(rotary electric)기기	9
10	수 동 부 품	24	계 측 제 어 분 석 기	8
	수 출 총 계	1,513	수 입 총 계	361

주 : MTI 3단위 기준 품목 분류
 자료 : 무역협회.

V. 한-헝가리 경제교류 현황 및 진출방안

- 헝가리의 농산품이 비교우위에 있어 한-EU FTA가 발효되면 농산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나. 해외직접투자 현황

(1) 헝가리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가) 연도별 유입 추이

□ EU 가입 이후 FDI 유입 증가

- 2002년 이후 내수경기 부진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던 FDI 유입이 2004년 들어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었음.
 - 2004년 5월 EU 가입 이후 서유럽 기업체들이 유로화 가치상승에 따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헝가리 내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경향을 보임.⁴⁰⁾
- 2005년 이후 FDI 유입규모는 다시 감소세를 보여 2005년 76억 달러, 2006년 68억 달러, 2007년 56억 달러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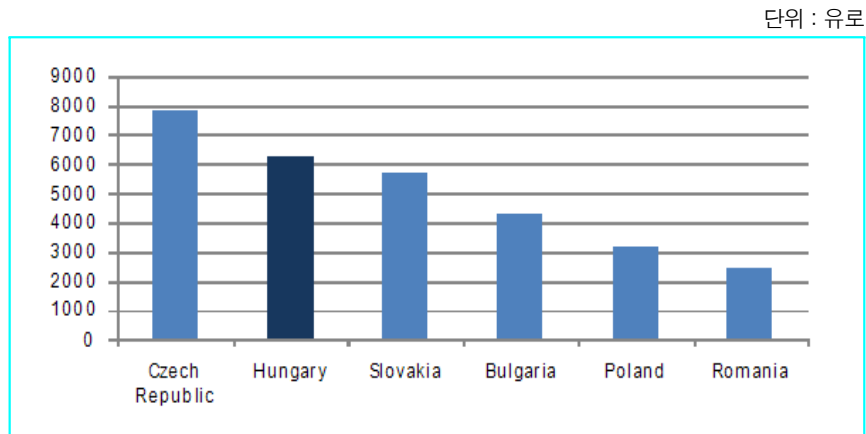
□ 중동부 유럽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유치 실적

- 헝가리는 인구 1,000만의 헝가리는 FDI 누계 유입액이 550억 유로를 넘어서며, 1인당 인구 기준으로 인구대비로 체코에 이어

40) 이는 실물경기 호전과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인책이 효과를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두 번째로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그림 V-2> 중동부유럽의 1인당 FDI 유입 누계
(2008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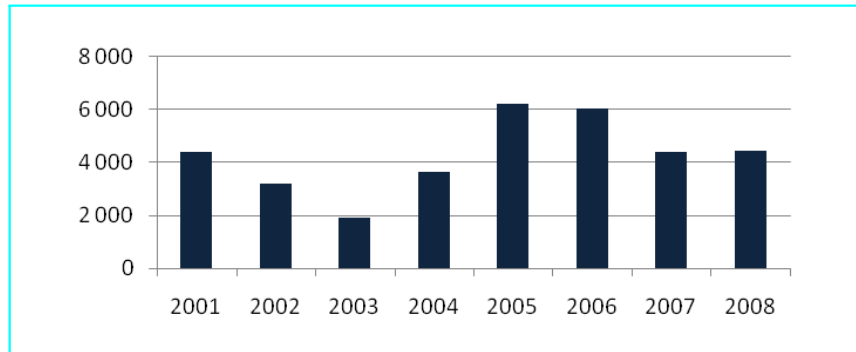


자료 : wiw, FDI statistics, 2009.

- 2008년 FDI 유입액은 44억 유로로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 비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그러나 2009년 1분기 유입액은 5억 3,570만 유로로 전년동기(8억 2,200만 유로) 대비 35% 감소함.
 - 이러한 감소는 국제적 조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UNCTAD는 2009년 1분기 FDI 유입이 54% 줄어들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외국투자자는 1990~2007년 기간 중 625개의 민영화사업에 참여하였으며, 헝가리 민영화 국영지주회사인 Allami Privatizacios es Vagyonkezeloe에 따르면, 총 투자금액은 1조 2,900억 포린트 수준으로 추정됨.

<그림 V-3> 헝가리 FDI 유입 현황
(2001~08년)

단위 :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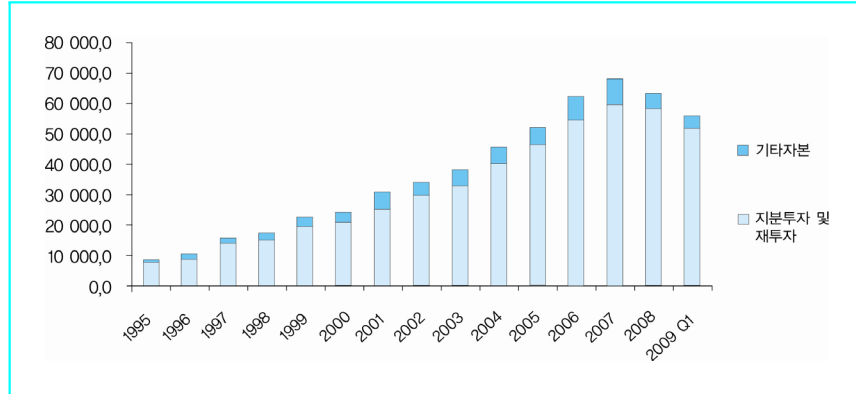
자료 : 헝가리 중앙은행, 2009.

□ 2008년 말 FDI 유입누계는 600억 유로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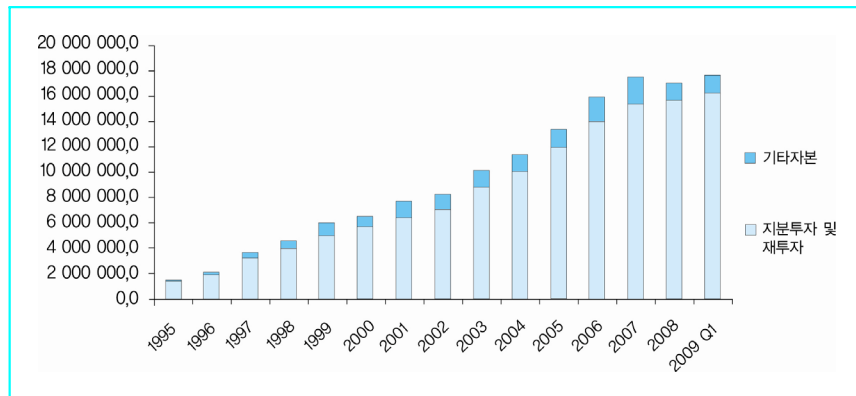
- 2008년 유입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FDI 유입누계는 600억 유로 상회는 유로화 기준으로 감소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감소는 외국자본 유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포린트화 가치 약세에 의한 것임.
 - 2008년 헝가리 중앙은행은 FDI 통계 취합 방법을 바꾸었음. 새로운 방법으로 인해 2007년과 2008년 통계자료는 비교가 사실상 어려움.
- 2008년 지분투자 및 채투자는 환율의 영향으로 유로기준으로 감소하였으나 포린트 기준으로는 감소하지 않음. 또한 2009년 1분기 FDI 유입누계는 포린트화 약세로 유로화 기준으로 감소하였으나 포린트화 기준으로는 3% 증가함.

<그림 V-4> 통화 단위별 FDI 유입누계 추이

단위 : 백만 유로



단위 : 백만 포린트



자료 : 헝가리 중앙은행, 2009.

□ 헝가리 FDI에 대한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은 미미

- 기대와는 달리 2008년 FDI 유입은 44억 유로에 이르면서 2007년에 비해 줄어들지 않았으나, 신규 프로젝트는 약 30%가량 줄어들었다. 2009년 1분기 유입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2009년, 2010년 FDI 유입은 15억~30억 유로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V. 한-헝가리 경제교류 현황 및 진출방안

- 요인: 위기 시 자국 내 시장에 대한 높은 투자 성향
- 전문가들은 2011년 회복을 전망하고 있음. 신흥 EU-12 지역은 투자처로서의 우호적인 여건을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갈 것이며, 헝가리는 연평균 35억~40억 유로의 FDI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V-2> 2008년 최대 FDI 투자

	투자계획	투자규모(천유로)	고용창출(개)
Daimler / Mercedes-Benz Manufacturing Hungary Kft/	다임러 AG 지주회사는 Kecskemét에 A-and B- Class 자동차 생산라인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조립공장을 세울 예정이다	770,000	2,500
TEVA	기술 향상, 생산능력 재고, 경영 합리화를 위한 목적으로 Debrecen에 알약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공장건립	60,999	309
British Telecom	Debrecen에 지역서비스센터 도입	31,332	600
Infineon	기술근대화 및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투자 실시	17,000	250
Güntner-Tata	Tata 지역에 생산능력 증대 및 시설 개발을 위한 투자 실시	16,288	70

자료 : ITD.

- 헝가리 정부가 자동차산업 등에 조세 인센티브 등을 통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헝가리 노동력은 임금에 비해 양질의 언어능력과 교육 수준을 갖추고 있어 노동효율성이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임.

□ 2009년 1분기 10개의 투자 프로젝트 결정

- ITD에 따르면 2009년 1분기에 10개의 투자 프로젝트가 투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음. 예정된 투자 가치는 1억 7천 유로에 달하고 3,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08년 1분기에는 2억 6천 유로 규모의 5건의 투자 결정이 있었음.
- 통합서비스(Shared Service), ICT, 물류, 관광업, 바이오기술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아직도 높으며, ITD는 자동차 부문에도 기업들에 자문을 해주고 있음. 그러나 경제 위기로 인해 20건이 넘는 프로젝트가 연기되었고, 2009년 1분기에 신규 프로젝트는 전년동기 대비 37% 감소하였음.

<표 V-3> 중동부 유럽지역의 투자계획 발표 건수

국 가	2008. 1분기	2009. 1분기
폴 란 드	93	42(-55%)
루 마 니 아	71	41(-43%)
헝 가 리	49	31(-37%)
체 코	36	22(-39%)
불 가 리 아	30	31(+3%)
슬 로 바 키 아	18	1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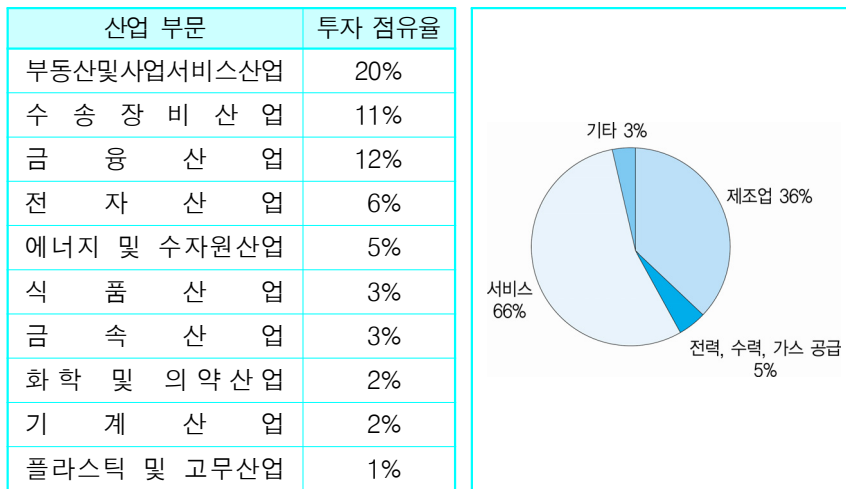
자료 : Fdi markets, Financial Times, 2009, June.

나) 산업별 유입 추이

□ 헝가리 FDI, 제조업 부문에 집중

- 1990년대 초 제조업은 주요 투자대상이었으며, 현재도 외국인 직접투자의 거의 1/3 이상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음. 그러나 1995년 이래로 서비스 기반이 성장하기 시작되었는데, 이는 서비스업부문의 민영화가 제조업 부문보다 다소 늦게 진행되었기 때문임.

<표 V-4> 산업부문별 FDI 투자 점유율 비교
(2008년 기준)



자료 : 헝가리 중앙은행, 2009.

□ 자동차, R&D, ICT, 바이오기술 및 물류 분야 투자유치 희망

- 헝가리에는 이미 General Motors, Suzuki 등 자동차 분야 투자회사들의 헝가리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으며, ITD에 따르면 2008년 최대 단일 투자자도 자동차 산업 부문에 투자한 다임러 그룹임.

<표 V-5> 자동차 산업별의 외국인투자 사례

기업	투자내용
	다임러 AG는 Kecskemét에 연간 메르세데스 A,B 클래스가 12만 대 조립될 수 있는 공장을 세우기로 결정함. 생산은 2011년에 시작될 예정이며 투자규모는 8억 유로에 이르고, 2,5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일본 Bridgestone은 일본으로부터 최신기술인 BIRD 생산 시스템을 헝가리로 들여왔음. 1억 9,500만 유로를 Tatabanya 지역에 투자하여 일일생산가능량 8000개 수준의 공장을 설립하였음. 185개의 일자리를 창출함.
	일본의 Asahi 유리는 1억 6,200만 달러를 투자하며, Tatabanya 지역에 안전유리를 생산할 목적으로 600명 고용 규모의 시설을 건립함.
	일본의 Ibiden은 1억 유로 이상을 Dunavarsany 지역 공장에 투자함. 1200명을 고용하여, 디젤 엔진을 위한 세라믹 필터를 생산할 계획임.
 Antriebs- und Fahrwerktechnik	독일의 ZF 헝가리는 Eger에 두 번째 제조공장을 짓기 위해 7,400만 유로를 투자할 예정임. 15,000m ² 대지에 1,400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연간 120만 개의 steering 기어, 170만 개의 A/C 펌프와 12만 개의 기어박스를 생산할 예정임.

자료 : ITD.

V. 한-헝가리 경제교류 현황 및 진출방안

- 다임러 그룹은 Kecskemét에 조립공장을 건립하여 메르세데스 벤츠 A, B 클래스 차량을 생산하려는 계획으로 7억 7천 유로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였고, 이로 인해 2,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전자산업과 관련하여 이동통신 시스템(Ericsson), 조명 및 X-ray 기술 장치(GE), 이동통신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Nokia)을 위한 부문별 R&D 센터가 들어서 있음.
- 지난 10년간 대학과 다국적 기업 간에 이동통신, 전자 및 의료 연구에 있어서 긴밀한 관계를 쌓아왔음. 헝가리의 MIT라 불리는 부다공대 출신 인력은 실제 기업인들로부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헝가리는 지속적인 자동차 부문 제조업 투자, R&D, 바이오기술 등 기술 집약사업 투자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지리적 이점을 살린 물류 분야의 투자도 유망분야로 꼽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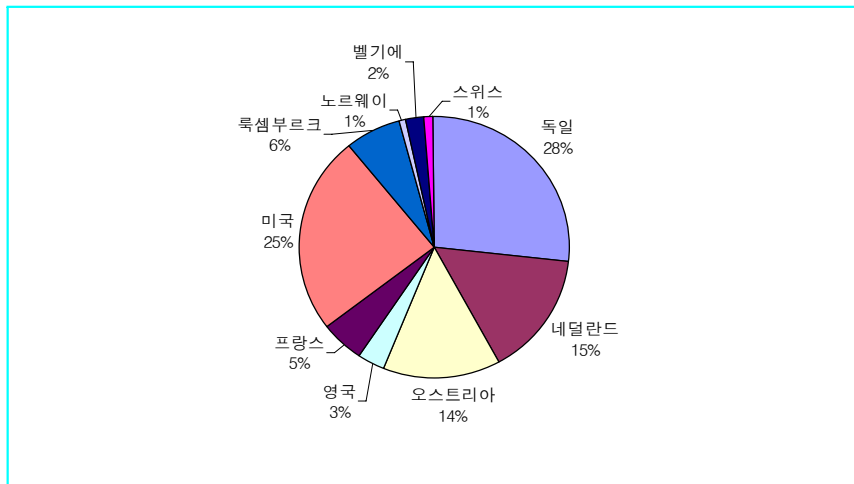
다) 국가별 유입 추이

□ EU 회원국이 전체의 70% 이상 차지

- 1990~2007년 외국인 투자기업은 625건, 1조 2,900억 포린트 규모의 민영화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국가별로는 독일 125건, 2,920억 포린트(23%), 미국 51건, 1,660억 포린트(13%), 프랑스 54건, 1,030억 포린트(8%), 오스트리아 151건, 640억 포린트(5%), 벨기에 15건, 530억 포린트(4%), 네덜란드 23건, 440억 포린트(3%) 등임.

- 여타 중동부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EU-15 국가로부터의 투자가 헝가리 FDI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지리적 근접성과 역사적 연결성으로 설명될 수 있음.
- 독일은 총 FDI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투자국이며 네덜란드 및 오스트리아도 주요 투자국임. 미국은 비유럽국 가운데 가장 큰 5%를 차지하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주요 투자국임.
- 2009년 대부분의 투자는 EU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독일의 경기 침체에 따라 독일 비중이 2001년 이래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함.

<그림 V-5> 국가별 FDI 투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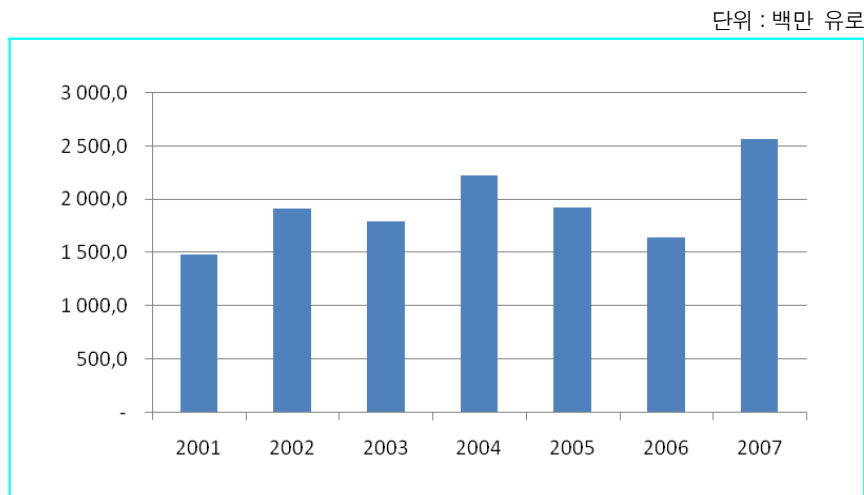


자료 : ITD.

□ 높은 재투자 비율

- 재투자(reinvested earnings)는 총 투자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FDI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서비스부문의 재투자가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2007년 중 재투자 비중이 큰 국가로는 독일, 룩셈부르크, 호주 등이 있음.

<그림 V-6> 연도별 재투자 유입 추이 (2001~07)



자료 : ITD.

(2) 우리기업의 대 헝가리 직접투자 현황

□ 수교 직후부터 헝가리에 진출한 삼성그룹

- 헝가리 해외직접투자는 동유럽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삼성전자의 1989년 수교 직후 생산법인을 설립함.

-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로 인해 1998~2000년 다시 투자규모가 축소되었으나, 헝가리의 EU 가입 이후 많은 우리 기업들이 유럽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전략의 일환으로 현지 투자를 선택하게 되면서 다시 활기를 띄게 됨.
- 2001년에는 삼성 SDI가 진출하면서 생산법인 설립 투자를 통해 브라운관 및 PDP 제조·판매를 담당하고 있음.
- 1억 5천~8천만 유로를 프로젝트에 투자한 삼성전자는 Jászfényszaru에 9천만 유로의 투자를 통해 TV 공장을 확장하였고, Göd에 공장이 있는 삼성 SDI는 PDP 모듈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라인을 개시했으며, PDP TV 생산 능력도 확대함.

<삼성그룹>

진출시기 : 1990년

총직원수 : 3,000명

진출기업 : 삼성전자(Jászfényszaru), 삼성디지털인터페이스(Göd),
삼성전기기계(Szigetszentmiklós)

공장현황 : • Jászfényszaru공장이 가장 규모가 크며, 유럽에서 가장
• 최첨단 TV 공장이기도 함.
• 삼성 SDI는 260만 개의 CRT를 생산하고 삼성전기기계는
• 전자부품을 생산
• 2006년 삼성 SDI는 Göd지역에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 공장을 설립
• 2008년 삼성은 PDP 모듈생산설비를 슬로바키아에서 헝가리로 이전하기로 결정

□ 2006년 한국타이어 한국 기업 중 최대 규모 투자

- 한국 타이어는 2006년에 진출, Dunaújváros 지역에 타이어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2010년까지 5억 2,800만 유로를 투자하여 할 예정임. 연간 생산능력은 천만 개 이며, 고용수준은 1,500명임.
- 한국타이어는 Dunaújváros에 있는 공장을 예정보다 1년 앞선 2008년에 확장기로 결정함. 2010년 까지 연간 천만 개의 타이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한국타이어>

2005~10년 신규투자규모 : 7억 3천만 달러

직원수 : 810(2010년까지 1,500명)

생산시점 : 2007년 6월

프로젝트 완료예상시점 :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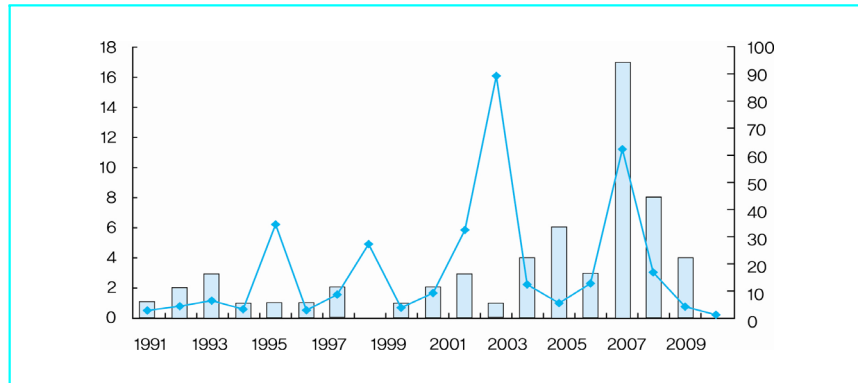
2010년 예상 연간생산능력 : 타이어 1,000만 개

□ 헝가리는 우리나라의 42위 투자대상국

- 한국의 주요 한국타이어, 삼성 SDI, 삼성전자, 삼성 EM, KDB 은행, 한화은행, LG 전자, 서울 Alloy metal, Taeryuk 고무벨트, 대우 MGM, 대우전자, 상진 Micron, 동양 Creditech 등이 있음.
- 2009년 9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 헝가리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3억 5,464만 달러로 헝가리는 우리나라의 42위 투자대상국임.

<그림 V-7> 대 헝가리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 건수, 백만 달러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총 투자 60%는 제조업 집중

—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으로 2009년 9월말 기준 2억 1,438만 달러를 기록하여 총 투자액의 60%의 비중을 차지함.

<표 V-6> 대 헝가리 업종별 투자현황

(2009년 9월말)

단위 : 천 달러

업종별	투자액(누계기준)	비 중
제 조 업	214,379	60.4%
금 융 및 보 험 업	104,271	29.4%
도 매 및 소 매 업	34,700	9.8%
건 설 업	681	0.2%
부 동 산 업 및 입 대 업	550	0.2%
운 수 업	61	0%
계	354,642	1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V. 한-헝가리 경제교류 현황 및 진출방안

- 한편, 제조업 중에서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에 대한 투자가 주종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현황

□ 대출자금 종류별로는 수출투자자금 지원이 최대

- 2009년 10월말 기준 한국수출입은행의 대 헝가리거래 관련 여신 집행누계는 대출 545건, 보증 3건으로 총 1.8억 달러이며, 대출은 수출자금 8,392만 달러, 해외투자자금 8,012만 달러 등임.

□ 지원 품목별로는 수송기계 전기전자·정밀기기에 집중

- 수출자금 관련 품목별 지원실적 누계를 보면, 수송기계(30,131천 달러) 및 전기전자·정밀기기(8,540천 달러)가 총 지원액 중 90% 가량을 차지함.
- 최근 3년간 수출자금 지원 동향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전기전자·정밀기기에 대한 수출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표 V-7> 대 헝가리 금융지원 누계
(2009년 10월말)

단위 : 천 달러

구 분	승인액	집행액	여신잔액
대 출	179,316	179,400	81,593
수 출 자 금	83,841	83,924	1,473
해 투 자 금	80,120	80,120	80,120
매 입 외 환	15,536	15,536	0
보 증	681	681	0
이행성보증	681	681	0
합 계	179,997	180,080	81,593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표 V-8> 최근 대 헝가리 주요 수출자금 지원 품목

단위 : 천 달러

지원 품목	2007	2008	2009.1~10
전기전자·정밀기기	0	343	1,409
일 반 기 계	1,401	213	53
수 송 기 계	8,616	2,171	2,227
철강·비철금속제품	40	738	427
석유·화학제품	624	62	486
서비스·기타	44	76	322
합 계	10,724	3,603	4,924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 대 헝가리 진출방안

□ 헝가리의 경제적 입지

- 헝가리는 동유럽의 중심국가로서 중세에는 오스트리아 제국으로서 동유럽을 사실상 폴란드와 양분한 국가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의 영토로 대폭 축소됨. 헝가리는 이런 과거의 역사적 배경으로 주변국가와는 언어·문화적 중첩관계를 형성함.
- 동유럽 중심지역에 위치하면서 동·서유럽의 브리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1,000km내 2억 5천만 명이 거주하는 소비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또한, 주요 시장과의 도로, 철도, 항공 등의 교통인프라 및 물류·통신 인프라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음.
- 헝가리가 자랑하는 최대의 자원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인력수준임. 매우 양질의 인력수준이 경제성장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IT, 제약 및 엔지니어링 등의 분야에 걸쳐 지식기반 산업이 잘 구축되어 있는 점이 고무적인 것으로 분석됨.
 - 특히, 학생의 90% 이상이 영어구사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독어, 불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등 제2외국어도 흔히 통용됨.

□ 제2차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시행

- 헝가리 정부(국가개발경제부·국가개발청)⁴¹⁾는 2004~06년 제1

41) 국가개발경제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and Economy)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개발청(National Development Agency)에서 직접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함.

차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을 수립하여 시행한 이후 2007~13년 제2차 국가개발계획(New Hungary Development Plan)을 수립하여 경제성장과 고용증대에 주력하고 있음.

- 현재 국가개발계획을 전담하고 있는 헝가리 국가개발청(NDA)은 정부조달절차에 준하여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음.

<표 V-9> 국가개발계획의 우선투자 분야 및 육성사업

우선순위 분야	비중(%)	정부 육성사업
1 경제 개발	10.0	혁신, 지식기반 경제, (중소)기업 소득창출능력 제고, 기업 인프라 및 서비스(ICT 기반구축)
2 교통 개발	25.0	대외 네트워크 개선, 지역접근성 제고, 경제중심지 연결기능 향상
3 사회 개발	21.8	고용증대, 인적자원 개발, 교육수준 향상, R&D 및 혁신개발, 보건여건 개선
4 환경·에너지	16.8	환경(폐수, 식수, 홍수대책 등) 및 기후변화 문제 대책 강화, 친환경(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5 지역 개발	23.2	도시간 협력기능 제고, 농촌지역 개발, 낙후지역 발전프로그램 수립·시행
6 정부 개혁	0.6	거버넌스(법규체계 등) 향상, 시민사회의 공기능 참여확대, 행정부문 변혁, 인적자원 향상

주 : 비중은 운영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지출금액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 헝가리 국가개발청(NDA).

V. 한-헝가리 경제교류 현황 및 진출방안

- 특히, 헝가리 국가개발청은 6대 국가개발계획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어 운영프로그램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경제개발, 교통개발, 사회개발, 환경·에너지, 지역개발 및 정부개혁에 대해 집중 투자할 계획임.
- 중점 경제개발 분야는 자동차, R&D, ICT, 바이오(제약 포함)⁴²⁾ 및 물류 산업 등이며, EU 기금⁴³⁾, 헝가리 국부펀드 및 기타 협조용자 등을 통해 소요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표 V-10> 연도별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연간 지출계획
(2007~13년)

단위 : 백만 유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경 제 개 발	350	339	323	335	380	374	395	2,496
교 통 개 발	378	579	806	962	1,026	1,205	1,268	6,223
환경·에너지	209	381	575	699	736	769	810	4,179

자료 : NDA, New Hungary Development Plan.

□ 헝가리에 대한 EU기금 유입규모 급증

- 2007~13년 제2차 국가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헝가리 정부는 EU로부터 구조조정기금(Structural Fund) 및 결속기금(Cohesion

42) 헝가리는 바이오기술 및 제약 분야의 R&D 센터를 설립하는 등 바이오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가 비교적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유럽 등 경쟁 상대국과의 비교열위에 있어 향후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지 않아 투자 유망분야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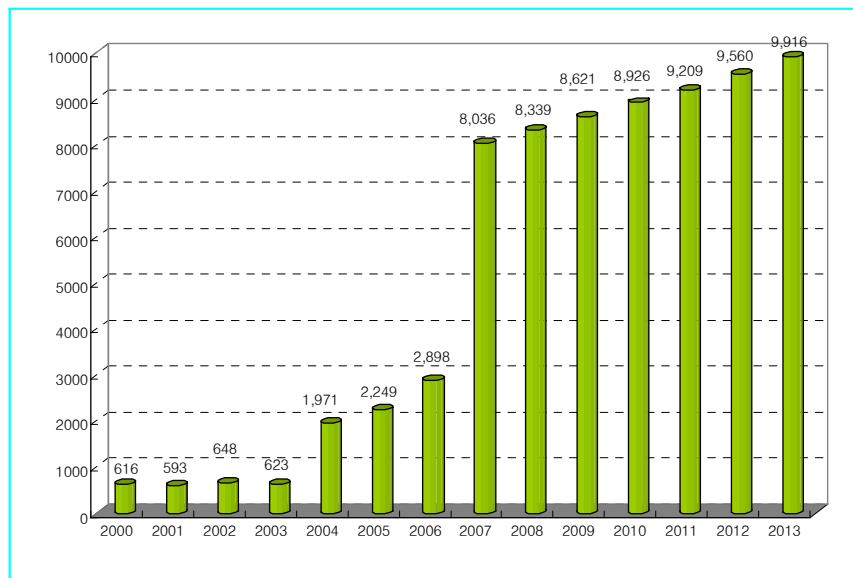
43) EU 규정상 10만 유로 이상의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연1회 이상 EU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음. 2007~13년 중 헝가리는 EU로부터 구조조정기금 및 결속기금 등을 통해 293억 달러를 배정 받음.

Fund)을 통해 경제개발 소요자금을 기본적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EU 기금 유입규모는 헝가리가 EU에 가입한 2004년에 일차적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07년 이후에는 그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헝가리 정부에 대한 2007~13년 EU기금 지원규모(240억 유로)는 구조조정기금 65%(156억 유로) 및 결속기금 35%(84억 유로)로 각각 지출됨. 이중 구조조정기금은 인프라개발을 위한 ERDF 80억 유로(51%), 인적자원개발 및 조직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ESF 22억 유로(14%) 등에 집중 투입될 계획임.

<그림 V-8> 헝가리에 대한 EU 기금 지원규모 추이

단위 : 억 포린트



자료 : National Development Agency.

가. 투자 유망분야

□ 한-EU FTA 체결로 대 EU 교역증대 예상

- 우리나라와 EU는 2007년 5월 FTA 협상을 개시한 이후 2009년 7월 한-스웨덴 정상회담에서 동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되었고 동년 10월 15일 가서명 절차가 이뤄짐에 따라 한-EU FTA는 이제 비준절차와 공식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임.
- 이에 따라, 2010년 상반기 공식서명을 목표로 2010년 이내 정식 발효가 될 경우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 파트너⁴⁴⁾인 EU와의 FTA 체결은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자못 클 것으로 예상됨.
- 다만, FTA 체결이 현지 직접투자보다는 상호간 수출·수입을 통한 교역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우리기업의 입장에서는 대 EU 수출비중이 크고 EU의 관세부과 수준⁴⁵⁾이 높은 산업일수록 동 FTA 효과가 크게 나타는 것으로 분석됨.⁴⁶⁾
 - 예를 들면, 수출비중과 관세율이 모두 높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수출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만 수출비중과 관세율이 모두 낮은 반도체, 컴퓨터 및 LCD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출증대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44) 우리나라 수출의 13.8%(미국은 11.0%), 직접투자의 34.3%(미국은 27.0%)를 차지하는 주요 경제협력 대상지역이며, GDP(2007년)는 16조 6천억 달러로 미국(13조 8천억 달러)을 능가함.

45) 2007년 기준으로 EU의 전 품목 평균관세율은 5.2%로 미국(3.5%)보다 높으며, 자동차(10%), TV(14%), 섬유(7.9%), 석유화학(최고 6.5%)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율이 높게 나타남(수은-전경련 한-EU FTA 체결과 우리기업의 활용방안 세미나 자료, 지식경제부, 2009.10.28)

46) 수은-전경련 한-EU FTA 체결과 우리기업의 활용방안 세미나 자료(김득갑, “한-EU FTA 체결과 우리나라 산업 및 기업 측면의 영향”, 2009.10. 28)

- 특히, 동유럽 지역은 성장잠재력이 높으며 우리기업의 현지생산 경쟁력 강화, 연관산업 활성화 등으로 높은 파생효과가 기대됨.⁴⁷⁾ 우리기업의 현지 생산법인을 포함한 대 EU 투자 및 수출 증대효과가 예상되면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⁴⁸⁾

□ 한-헝가리 협력 가능분야

- 헝가리와 우리나라 정부(지식경제부 주관)는 한-헝가리 산업협력위원회를 매년 정례화하면서 양국간 산업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있음.
- 헝가리 정부에서는 국가개발계획의 우선순위 분야로 선정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ICT, 원전개발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자동차산업의 경우 엔진, 연료, 부품 등에 관한 연구개발(R&D) 분야가 상호 협력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
- 또한, 헝가리 투자청(ITD)에 따르면, 우리기업의 대 헝가리 투자를 선호하는 분야는 자동차, 전자, 생명과학, ICT, R&D, (재생)에너지, 화학 및 기계 산업이며, 양국간 교역증대가 예상되는 분야는 농산물, 식음료, 기계·자동차부품, 생화학제품, 화장품, 우리제품 및 과학기구 등인 것으로 파악됨.

47) 수은-전경련 한-EU FTA 체결과 우리기업의 활용방안 세미나 자료(지식경제부, "한-EU FTA 체결 주요 내용", 2009.10.28, p.7)

48) 우리나라의 대 EU 무역규모는 수출 584억 달러, 수입 400억 달러로 총 984억 달러(2008년 기준)이며, 한-EU FTA 발효시 관세인하 효과로 인해 제조업 부문에서 연간 47억 달러의 교역증대가 예상됨(Ibid, p.8)

(1) IT 산업

- 우리나라와 협력 가능한 분야는 게임 소프트웨어, 3D Holographic(인터페이스), 인체인식 프로그램,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등임. 또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계한 제품을 생산하는 분야도 향후 잠재적인 협력 가능분야로 고려할 수 있음.
- 헝가리에는 SZTAKI 등 대형 IT 기업이 있지만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R&D 센터(Ericsson, Bosch 등 참여) 등의 상호 연구기반이 갖추어져 있어 EU 회원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참여가 쉽지 않을 것임. 따라서 Net Visol⁴⁹⁾ 과 같은 소규모 기업과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양국간 IT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호 연구경험과 교류 가능한 상품 개발, 협력기업간 협조적인 태도 및 문화,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능력 등의 전제조건을 보유한 기업이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헝가리 IT 협회(IVSZ)에 가입한 300여개 기업 중에서도 위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기업은 40여개의 다국적기업을 제외하고는 50여개 기업 정도로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 2008년 하반기 이후의 경제위기로 헝가리 제조업 부문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으나, 서비스 부문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은

49) 헝가리의 대표적인 IT 전문가(물리학자)인 Charles Simonyi가 설립한 기업으로 종업원은 50~60명에 불과하나 네트워크 솔루션 개발업체로 유명함.

것으로 파악됨. 2009년 3월에 최악의 국면에서 통신 부문 위주로 점진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산업협력 강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음.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헝가리 IT 기업의 부도사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10년 전 동아시아 외환·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하게 위기 이후 IT 산업이 급성장한 사례를 고려하면, 우리기업의 헝가리에 대한 생산제품(PC), 정보통신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유망할 것으로 분석됨.

- 특히, 헝가리는 2008년 6월 EU로부터 유럽 R&D 센터로서의 중심 연구기능을 담당하게 될 유럽기술연구소(EIT)⁵⁰⁾를 유치하게 되었는데, Ericsson의 경우 1천명 이상의 헝가리 엔지니어를 고용하여 현재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임.

(2) 자동차 산업

- 자동차 산업의 경우 독일, 일본 및 미국계 기업이 주로 주문자생산(OEM) 방식으로 자동차를 현지생산하고 있어 현지 생산시설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헝가리 내수시장을 겨냥한 판매증가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외국계 자동차(부품) 관련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Audi는 유럽에서 최대 엔진공장 및 R&D 센터를 헝가리에 설립하였고, Suzuki는 유럽 내 유일한 자동차 생산공장을 헝가리에 설립하여

50) 유럽의회가 2007년 7월 미국 MIT 대학 수준의 R&D 관련 연구소를 헝가리에 설치할 것을 승인하여 2008년 6월 18일, 부다페스트 지역에 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EIT)를 설립함.

V. 한-헝가리 경제교류 현황 및 진출방안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타이어가 2007년 5월 현지 생산시설을 투자(5.35억 유로규모)한 바 있음.

- 다임러 그룹의 Mercedes-Benz도 2010년 Kecskemet 지역에 자동차 생산공장 설립투자계획(7.7억 유로규모)을 통해 2,500명의 고용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헝가리에 대한 FDI 유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타 동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투자인센티브 지원이 지속되고 있고 양질의 언어 구사능력, 높은 교육수준 등 노동력의 생산효율성이 큰 점도 향후 자동차산업 등에 대한 투자지속이 가능한 사유임.
- 헝가리 자동차산업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대체적으로 내수 시장보다는 폴란드 및 체코에 비해 잘 발달된 도로망을 통한 유럽 각국에 대한 자동차 공급 허브로서의 역할을 겨냥한 것인데, 최근에는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로도 어려운 상황임.
- 헝가리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산업이 장기적인 불황에 빠지게 되면 자동차 판매네트워크 시장도 붕괴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주변국의 경기상승으로 자동차산업이 불황에서 벗어나야 헝가리 자동차산업도 실질적인 회복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음.
- 한-헝가리 협력 가능한 분야로는 완성차보다는 전동차에 소요되는 전기(부품), 화학(고무제품) 및 관련 IT 산업 등이 유망할 것으로 보임.⁵¹⁾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모터, 변압기, 차단기 등의 자

51) 헝가리 자동차 업계는 전기자동차 파리 모터쇼에서 태양광 전기자동차(Solar-

동차부품 개발을 위해 R&D 센터를 설립함.

(3) 인프라건설 산업

- 우리나라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는 발전소 건설 부문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음. 현재 헝가리의 발전용량은 1997~98년 발전설비 능력 수준으로 자국내 발전수요의 30% 정도만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기업의 원전 참여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상황임.
 - 헝가리 정부는 2009년 9월 초 원자력 발전소 추진계획을 최초로 고려하기 시작하여 사업입찰 등 구체적인 추진사업을 마련 중임.
- 헝가리 정부는 2020년까지 총 에너지 생산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3%로 제고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주요 관련산업은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풍력, 태양패널기술 등의 분야임. 바이오연료 및 바이오매스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EU 기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 6억 유로를 헝가리 정부는 투입할 계획임.
- 다만, 풍력, 태양열 등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대한 헝가리 정부의 추진 사업은 아직 논의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됨.

Powered Solo hybrid)를 출품한 사례도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을 육성하려는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과도 부합하는 부분이 있음.

나. 현지 진출시 점검사항

□ 국가위험도(Country Risk) 평가⁵²⁾

- 헝가리 경제의 장애요인인 경상수지·재정수지 적자 심화현상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거시경제 불안 및 대외거래 불균형 요소로 우려되는 상황이며, 2006년 이후 경직적인 재정 운용 및 과도한 외채상환부담이 경제성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음.
- 다만, 2009년 3월을 저점으로 환율 및 종합주가지수 등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7월에는 유로채권 발행에도 성공하며 금융시장은 최악의 국면은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IMF의 대기 성장관 지원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긴축 재정정책이 지속되고 있고 실업률이 9%대로 높은 상태여서 당분간 실물경제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금융 및 외환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 측면에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 말 IMF, EU 및 세계은행으로부터 251억 달러의 긴급 구제금융을 지원 받으면서 헝가리의 국제신인도가 악화된 상태임.
- 2008년 하반기 이후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헝가리 등급 하향조정
 - 2008년 11월 S&P 및 Fitch가 BBB+에서 BBB로, Moody's가 A2에서 A3로 헝가리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각각 한 단계 하향조정함.

52) 국내 유일의 국가신용도 평가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평가자료를 기준으로 재구성함. 한국수출입은행의 국가신용도 평가등급은 A, B1, B2, C1, C2, C3, D1, D2, E의 9단계로 구분하여 E등급인 경우 채무불이행 상태를 의미함.

- 2009년 1월, OECD 국가위험도 평가에서 OECD 국가위험도 평가에서도 헝가리 신용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 조정 한데 이어 2009년 3월 들어 S&P, Moody's가 헝가리 정부채 권 신용등급을 하향(BBB→BBB-, A3→Baa1) 조정하였으며, Fitch도 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변경함.

<표 V-11> 주요 국가위험도 평가기관의 헝가리 평가추이

평가기관	2008년 말 기준	2009년 말 기준
한국수출입은행	C1	C1
OECD	3등급	4등급
S&P	BBB<3>	BBB-<3>
Moody's	A3<2>	Baa1<2>
Fitch	BBB+<2>	BBB<3>
ICRG	65/140	70/140
Euromoney	54/186	64/186
I. I	48/171	55/177

주: < > 표기는 OECD 평가등급에 매칭한 것으로 7등급일수록 국가신용도는 악화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9.

□ 투자환경위험⁵³⁾ 진단

- 2008년 우리나라의 대 헝가리 해외직접투자(ODI) 실적은 전년 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외국기업의 대 헝가리 직접투자(FDI) 는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53) 한국수출입은행은 2007년 7월부터 우리나라의 주요 해외직접투자국(24개국)을 대상으로 투자환경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투자통계, 국가위험도 및 투자여건 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투자환경위험 평가수준을 요주의, 정상 및 양호의 3 단계로 구분하여 발표함.

V. 한-헝가리 경제교류 현황 및 진출방안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EU 등 선진권 투자자의 대외투자자산 회수가 확대되면서 헝가리 채권 및 증권시장에서 자금유출 현상이 나타났으나, 다임러 그룹 등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2008년 FDI 유입은 오히려 늘어남(단, 신규 프로젝트는 30% 감소).
- 2008년 하반기 이후 유럽지역 전역에 걸친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면서 실물경제 악화 및 주요 무역상대국(서유럽) 경기침체로 수출 위축 및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됨. IMF는 헝가리에 대한 경제성장률은 2008년 0.6%에서 2009년에는 -7.0%로 전망함.
- 2008년 10월 말 금융위기에 대한 EU, IMF 및 세계은행의 긴 급지원으로 유동성 부족현상이 일시적으로 해소되었으나 2009년 1월 OECD 국가위험도 평가에서는 IMF 차관에 따른 경제 개혁 프로그램 이행이 정치사회적으로 난관에 직면하고 있는 점 등이 우려됨.
- 단기유동성위험은 2009년 하반기에는 상반기 평가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외환보유액 증가는 수출증가에 의한 것이 아닌 IMF 차관 및 유로본드 발행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근본적 위험이 감소한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됨.
- 투자여건은 기업경영여건⁵⁴⁾, 글로벌경쟁력지수⁵⁵⁾ 및 시장동향·제도변화⁵⁶⁾ 부문으로 세분되는데, 기업경영여건과 글로벌경쟁력지수

54) 세계은행 그룹인 국제금융공사(IFC)가 매년 9월 Doing Business를 통해 180여 개 국가별로 평가함.

55) 세계경제포럼(WEF)은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매년 9월 글로벌경쟁력지수(GCI)를 130여개 국가별로 발표함.

56) 국가별 외국인투자 정책 및 제도, 글로벌 경제위기 관련 시장동향 변화 등을 조사

는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나 종전평가 대비 악화되었으며, 시장동향·제도변화 부문은 종전평가 대비 개선되었으나 단기유동성위험과 더불어 주의가 요망되는 평가분야임.

- 기업경영여건 부문은 사업개시 및 조세납부 등에서 투자여건이 악화되어 종전의 41/181에서 이번에는 47/183로 평가순위가 악화됨.
 - 글로벌경쟁력지수는 거시경제안정성, 노동시장 효율성 및 인력관리 분야에서 크게 개선되어 62/134에서 58/133으로 상승하였으나, 제도(정책·시스템), 기업 발전수준 등에서 순위가 하락하여 전반적인 평점은 오히려 다소 악화됨.
 - 시장동향·제도변화 부문은 종전 대비 내용면에서는 크게 변동하지 않았으나, 금융·외환제도 측면에서 포린트화 가치가 2009년 3월을 저점으로 안정화 되면서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고, 주식시장 및 CDS 가산금리도 안정화되면서 개선된 모습을 보임.
- 종합평점은 48.2점으로 산출됨에 따라 투자환경위험 평가(위험) 수준은 종전의 요주의(“높음”)에서 한 단계 개선된 정상(“보통”)으로 분류됨.
- 이는 기업경영여건 및 글로벌 경쟁력 지수 악화에도 불구하고, FDI 유입이 증가하였고 단기유동성 위험이 감소되었으며, 금융·외환시장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시장동향·제도 분야에 대한 평가가 개선되었기 때문임.

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자체적으로 평가함.

<표 V-12> 헝가리에 대한 투자환경위험 평가결과 요약

		2009.3	2009.9	비교평가
투자통계(FDI 유입통계)		70.0	50.0	개선
국가위험도	국 가 신 용 등 급	38.0	38.0	유지
	유 동 성 위 험	78.0	70.0	개선
	수 용 · 송 금 위 험	20.0	20.0	유지
투 자 여 건	기 업 경 영 여 건	36.0	38.0	악화
	글로벌경쟁력지수	46.7	48.3	악화
	시장동향·제도변화	66.7	60.0	개선
총 합 평 가		52.7	48.2	개선

주 : 종합평점이 40점 미만은 투자환경위험 평가수준 양호, 40~50점은 평가수준 정상, 50점 이상은 평가수준 요주의로 분류됨.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